

지부 순례

서울지부를 찾아서

당 협회는 10개 지부와 5개 산업보건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산업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부는 그 지역내의 노동부 지방사무소, 사립장, 관련 대학 및 특수검진기관과 협력하여, 보건관계자 직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지역산업보건의 중추인 각 지부를 순방하여 그 활동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서울지부의 이동검진차

서울지부는 1966년 3월 27일 결성되었으며, 소속 산업보건센터는 1968년 5월 1일 “시범지역 영등포산업보건서비스센터”로 출발하였다. 이 센터는 당시 영등포 및 경인지역의 영세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노동력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것이다. 그후 1974년 7월 19일 가톨릭의과대학과 기술지원협정을 맺어 학술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지부는 체제를 정비하고 임직원이 단합하여 오늘날도 근로자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81
(어머니회관 4층)
전화 634-8583·633-5212

• 지 부 장 : 남 택 승 박사 (순천향의대 교수)
센터소장 : 조 영 선 박사 (가톨릭의대 교수)

사업활동 소개

— 근로자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고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건강진단실적 (단위 : 인원수)

연도별 진단내역별	'80	'81	'82	'83
특수건강진단	32,145	35,747	29,567	11,360
일반건강진단	33,710	41,053	32,727	29,281
정밀검사	1,209	1,343	1,712	1,305

작업환경측정실적 (단위 : 사업장수)

'80	'81	'82	'83
476	425	328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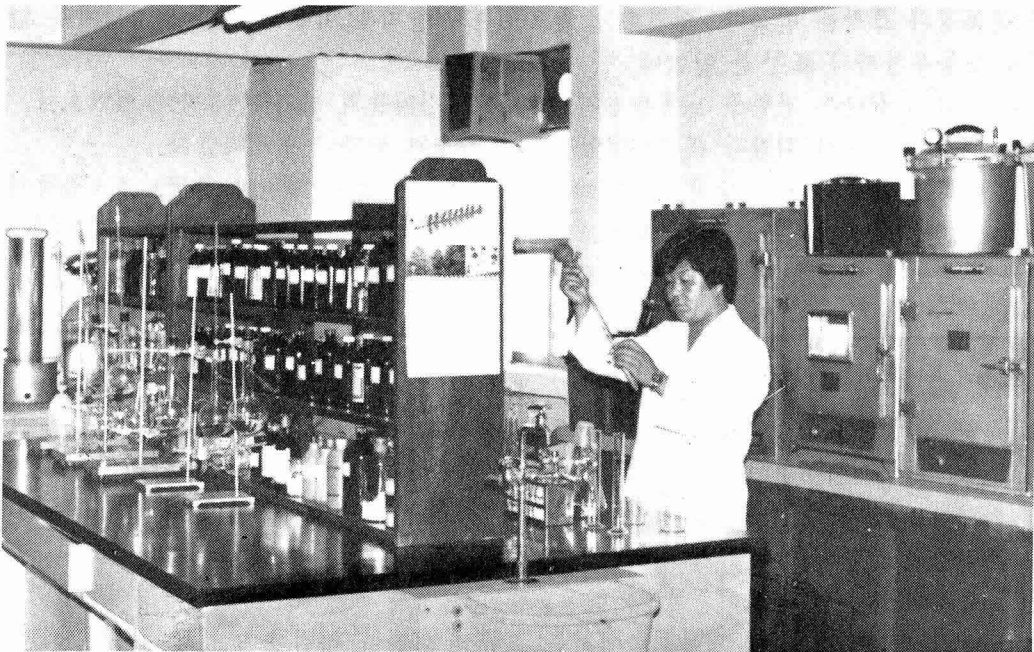
83년도 실적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수검진이 구역담당제로 되어 서울지부의 경우 대상 사업장이 노동부 서울남부 지방사무소 관할 사업장으로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 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에게 선임후 일정기간내에 반드시 법정 직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부에서는 83년도에 보건담당자 1,8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84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학술조사연구 등

가톨릭의대의 지원을 받아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300인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영세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개선을 위하여 지도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험실 : 작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